

중국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한국문화 지도 방안

---교과목 '한국(조선)문화'에 관하여

남연(중국 북경대학교)

<Abstract>

Nam Yeon. 2008. Efficient guidance plan of Korean culture in Chinese college. In pace with the increase of the concern about the role of culture education in language education,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of Korean culture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also realized in China. Although so much effort has been paid for making efficient guidance plan of Korean culture, many problems are still remained in both the practice of teaching-learning and also the research, and for this reason it's very difficult to carry out a systematic and efficient Korean culture education. So this paper is just written as a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Korean culture education in China. In this paper, as a plan of teaching culture as knowledge efficiently, the character, the objective, the developing direction of textbook and the lesson plan of subject of 'Korean culture' are studied. To clarify the developing direction of textbook, the standard of developing native language textbook is presented first and other seven main points are mentioned consecutively. To make clear the lesson plan, the method of teaching culture which is proposed by chenshen is introduced first, and basing on it a lesson plan for teaching p'ansori is made as an example.

[key words]: 문화교육(culture education), 교과목 '한국(조선)문화'(subject of 'Korean culture'), 성격(character), 교수-학습 목표(objective of teaching-learning), 교재 개발 방향(developing direction of textbook), 수업 지도 방안(lesson plan)

1. 머리말

언어교육에서 소위 '언어'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의 일부로 이해됨에 따라,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지난 1990년대부터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문화 지도를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해 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0년

대 후반기에 접어들어 문화 도입, 문화요소 주입, 문화 접목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였고, 이에 연구자들은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접목할 방안들을 고안해 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보유, 2005: 429).

그간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화교육은 그 실천에 있어서 언어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동시에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방식, 독립된 교육과정 개설로 한국문화교육을 전문하는 방식¹⁾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다(강보유, 2005: 429), 또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어휘, 문법 등의 언어요소에 담긴 문화요소를 언어요소와 함께 효율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는 연구²⁾, 독립된 문화 교과목 설정이나 한민족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언어요소를 함께 고려한 교재 개발을 강조한 연구³⁾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의 한국문화교육이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란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문화[交際文化]와 그렇지 않은 지식문화(知識文化)로 나뉘 보는 바람직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⁴⁾

그러나 교육의 실천과 연구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문화교육 실천에 있어서는, 비록 많은 독립적인 문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론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르치고 선택과목이라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으며 적당한 교재⁵⁾도 없다는 등의 약점 때문에 실제 제대로 된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또 언어교육 관련 교육과정에서 문화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언어요소에 담겨진 문화요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
- 1) 각 대학교는 대부분 “한국 및 조선 개황”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한국문화교육용으로 “조선(한국) 역사”, “조선-한국학연구”, “조선민속”, “조선(한국)문화”, “중한 문화 비교” 등의 교과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지식을 가르치고 있다.
 - 2) 김광수(2000:366-374)는 어휘차원에서 한국어 교수과정의 문화요소 주입에 대하여 논의했고, 이득춘(2000:392-407)은 문화교육의 필요성, 문화요소가 풍부히 담겨진 언어교재 개발을 논의하면서 한국어 표면문화와 함께 표현구조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심층문화까지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대인 견학과 같은 의사소통 경험적 활동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용혜(2000:408-419)는 사유와 번역의 측면에서 사유방식에 따른 언어표현 구조의 문화적 차이를 찾아 가르칠 것을 강조하였고, 문영자(2002: 503-518)는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글, 어휘, 속담, 문학작품, 화법, 노래와 무용 등을 통한 문화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정자(2000:346-357)는 문화교육의 범위를 정서문화와 교제문화 두 차원으로 나뉘 보고 3, 4학년부터 문화교육과정, 이를테면 한국 國情學, 한국사회와 문화, 중한문화비교, 중한문화 교류사, 한중문화행위 비교 등의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대폭 늘려 학생들의 문화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초급에서는 학생들의 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초과정에서의 단순한 언어전수보다는 한국문화와 중국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제 문화 요소를 도입시켜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례로 어휘, 문법기능, 금기어와 완곡어, 성구와 우연, 풍속습관 등에 나타난 문화적 차이를 들고 있다.
 - 3) 이정자(2000:346-357)는 3, 4학년부터 문화교육과정, 이를테면 한국 國情學, 한국사회와 문화, 중한문화비교, 중한문화 교류사, 한중문화행위 비교 등의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대폭 늘려 학생들의 문화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명식(2000: 358-365)은 한민족의 우수하고 중요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언어요소를 반영한 교재 개발 및 이에 따른 영상 자료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 4) 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단어나 글귀에 관한 문화 배경 지식의 결핍으로 인해 더러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문화배경지식을 의사소통문화[交際文化]라 한다. 지식문화(知識文化)란 서로 다른 문화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단어나 글귀를 이해하고 사용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문화 배경 지식을 가리킨다. 의사소통문화[交際文化]와 지식문화(知識文化)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周思源 편(1998: 44-59)을 참조할 것.
 - 5) 기존에는 주로 한국에서 출판된 책이나 담당교사에 의해 임의로 수집된 자료를 교재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들 ‘교재’는 학습자의 학습 특징과 학습 여건 등의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편찬된 교재가 아니므로 내용의 범위, 체계화, 위계화, 난이도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이들 ‘교재’ 중 일부는 중국어로 된 것도 있어서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한국어학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미치지 못해 제대로 갖추어진 교재도 없으니, 결국 효율적인 문화교육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리고 문화교육 연구 있어서 양적으로도 기존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 게다가 내용적 측면에서도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밀접한 관계,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는 원론적 논의와, 어휘교육 및 문법교육 차원에서의 문화교육을 강조하는 데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즉 기존의 문화교육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문화교육의 내용 범위, 체계나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재 개발 등 독립된 문화 교과목(즉 지식문화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효율적인 문화교육을 이루려면 이상과 같이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애초에 지식문화를 교수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많은 문화 교과목이 실제로 남겨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기존 한국문화교육의 실정을 개선하고, 나아가 독립된 문화 교과목으로서의 “한국(조선)문화”의 성격과 교수-학습 목표, 교재 개발 방향 및 수업 지도 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지식문화를 효율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2. “한국(조선)문화”의 성격 및 교수-학습 목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외국어교육)에서 다루는 문화는 크게 의사소통문화[交際文化]와 지식문화(知識文化)로 나뉘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의사소통문화는 주로 어휘, 글귀 등의 언어요소 및 몸짓 등 비언어요소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의미, 사회규칙 등 미시적인 문화요소를 가리킨다. 또 지식문화는 역사, 지리, 경제, 정치, 종교, 법률, 철학, 사상의식, 도덕관념, 과학과 기술의 발명, 문학예술 등 거시적인 문화 배경 지식을 가리킨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사소통문화는 초급단계, 지식문화는 중·고급단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지식문화를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구체적 교수-학습 목표나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조선) 역사”, “한국(조선)민속” 등 문화 교과목을 설정하는 것, 언어교재에 지식란(知識欄)을 설정하여 설명해 주는 것 등의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게끔 한국의 제반 중요한 문화를 체계적으로, 두루 담는 “한국문화”란 교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제반 한국 지식문화를 중점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학교 학습 시간에 방대한 한국 지식문화를 모두 학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학습자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문화를 골라서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역사, 민속, 정치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된 지식보다 모든 분야의 지식을 두루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이에 이상의 논의와 머리말에서 지적했던 기존 문화 교과목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

과목 “한국문화”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한국문화”는 중·고급 단계에서 설정되는 교과목으로 학습자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식문화를 한국어로 가르치는 언어문화 교과목이다.

둘째, “한국문화”는 개론적이고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과목이 아니고 학습자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식문화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교과목이다.

셋째, “한국문화”는 역사, 경제 등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습자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 관련된 중요한 문화 내용을 두루 다루는 교과목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교과목 “한국문화”는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필요한 문화지식을 안다.

둘째, 어휘나 문화지식 등을 학습함으로써 한국어 언어능력이 신장된다.

셋째, 한국어 언어능력의 신장과 문화지식의 습득을 통해 한국을 보다 깊이 있게 잘 이해한다.

3. “한국(조선)문화”의 교재 개발 방향⁶⁾

교육 현장에서의 교재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교수-학습을 위한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교재는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해석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실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자료화하여 전개시킨 교수-학습의 자료이다. 따라서 교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선택하여 배우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 줌으로써 교사의 교수 활동을 돕고, 교수 기능을 대행하게 해 주며,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자발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재가 지니는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노명완, 2001:11-13).

① 관점 반영의 기능: (한)국어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고나한 교육공동체의 합의 및 그 변화를 보여준다.

② 내용 제공 및 재해석의 기능: 교육과정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된 내용 요소를 구체화하여 보여준다.

6) 교재 개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한국(조선)문화’의 교수-학습 내용 체계(구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에서의 한국문화교육 내용 구성에 관한 논의(조현용(2003), 민현식(2004), 조항록(2004) 등)가 몇편 나와 있으나 그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교과목인 ‘한국문화’ 내용구성을 정립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고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다.

- ③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 기능:** 교수-학습 목표의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언어 자료를 제공한다. 실상 교재 편찬이란 '어떤 텍스트를 제재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 제공은 교재의 핵심 기능이다.
- ④ **교수-학습 방법의 제시 기능:**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수-학습의 과정, 과정별로 각자에게 부여된 과제, 과제해결의 전략 등을 단계화하여 제시한다.
- ⑤ **학습 동기의 유발 기능:** 학습자의 심리적·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도전적인 과제를 줌으로써 성취도를 높인다. 학습 목표와 학습 과제를 주어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학습자의 사전 경험과 관계되는 자료를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교재는 '배워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재제시만으로도 학습자는 어떤 식이든 반응을 보이게 된다.
- ⑥ **연습을 통한 기능 정착의 기능:** 특히 언어수행기능 영역에서 반복·심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료 및 방법을 제시한다.
- ⑦ **평가 자료의 제공 기능:** 교수-학습 결과 평가의 자료 및 방법을 제공한다. '교과서에서 나온다'거나 '시험 범위'와 같은 구태의연한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에게는 평가의 목표와 내용을 인식시키고 교사에게는 평가 방향과 원리,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전향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이상의 교재가 갖는 일반적인 기능은 교재 개발 및 평가에 있어 참조할 만한 기본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교과목 '한국문화'의 교재 개발에 있어서 이상의 기본 원칙에 따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교과목 자체의 특징을 고려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의점도 있다.

첫째,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문화” 교과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설정된 교과목으로 한국문화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이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목이기도 하다. 이에 교재 자료를 선택하고 편찬할 때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 기준은 학습자들이 사전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재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전을 적게 이용하는 상황에서 교재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언어 수준의 교재이어야 만이 비로소 학습자들이 제한된 수업시간에 문화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수준의 자료가 수록된다면 학습자들 스스로도 예습과 자습을 병행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기본내용과 심화내용으로 양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같은 학년을 다니는 학습자라도 기본적인 지식에만 만족하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보다 심도 있는 지식을 원하는 학습자도 있다. 따라서 문화 내용을 기본-심화로 양분하여 제시해 준다면 학습자들의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주제 선택에 있어서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 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면 '전통 문화'가 먼저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 특히 외국인에게 외국 문화를 가르칠 때 역사적으로 내려온 전통문화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교수-학습자는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인 만큼 현대문화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니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골고루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⁷⁾

넷째, 문화 내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서술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사회제도 및 문화

적 차이 때문에 한국의 역사, 문명, 정치, 민속, 도덕관념 등 문화의 어떤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다룰 때 과소평가도 과대평가도 아닌 객관적인 사실만을 들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조선(북한)의 문화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과의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한국문화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졸업한 후에 한국과 조선(북한)을 상대로 일하게 될 점을 고려할 때, 한국어와 조선(북한)어, 한국문화, 조선(북한)문화를 모두 학습할 것이 요구된다. 물론 성격에 따라 다소 치우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완전히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섯째, 오로지 문화지식을 설명해 주는 방식의 따분한 글로만 교재를 구성하지 말고,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학 작품 등 기타 장르의 글도 함께 수록해 주는 것이 좋다. 소위 문화지식을 전수하는 교과목인 만큼 문학사 교재, 역사 교재처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을 자칫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설명문도 적당히 필요하나, 그 외에 문화내용이 짙게 담겨져 있는 수필, 소설, 전설, 신화, 전기 등 기타 장르의 글도 다양하게 수록해 주면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한중 문화 비교의 시각으로 자료를 선택하거나 연습활동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자국문화의 영향에서 자란 학습자는 예외 없이 외국문화를 자국문화와 비교하면서 배우게 된다. 이런 비교를 통해 외국문화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문화에 대한 재인식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재 자료를 선택하

7) 2007년 8월 5일-18일 한국 경희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중국 한국어교육자 연수 프로그램에서 경희대 신영성 교수님이 "한국의 현대문화와 예술"이라는 주제로 한국문화를 가르치신 경험에 대해 강의해 주신 바 있다. 강의 하셨던 문화 주제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셨는데 이들 문화 주제는 중국 쪽에서 한국문화 교재를 만들 때에도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차	강의 주제	주차	강의 주제
1	한국의 문화-소프트 파워(soft-power)	8	미인1 1) 화가 신윤복의미인도에서 영화배우 전지현까지
2	전통과 현대문화의 만남 1) 판의 문화와 붉은 악마,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9	미인2 1) 성형, 변화하는 한국 미인의 기준-꽃미남과 섹시녀
3	한류1 1)드라마 <사람이 밋길래>에서 영화 <왕의 남자>까지(1997-2005)	10	의사소통 1) 궁합과 코드
4	한류2 1) 댄스 그룹 <클론clon>에서 <비보이>까지 (1998-2005)	11	한국인의 음식문화 1) 밥-김치-된장-젓갈
5	유행어와 신조어 1) 된장女와 고추장男 2) 인터넷 신조어	12	색(色) 1) 전통의 색 -순백(純白)과 조선 백자 2) 무지개 색
6	퓨전(fusion)의 문화 1) 혼혈-국제결혼 2) 재외동포	13	도시여행-서울 1)유교도시 서울, 조선의 4대 궁권과 종묘
7	성(sex) 1) 춘화(春畵) 2) 영화로 보는 한국인의 성		

거나 연습활동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문화 비교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8)

8) 교재 편찬 원칙과 유의점에 관한 이상과 같은 논의는 매우 추상적이다. 따라서 교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적절한 구상이 어렵다. 이에 중국의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교육에서 설정된 ‘중국문화’ 과목 교재들의 구성 체계를 보여줌으로써 한국문화 교재의 편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교재는 하나의 실례일 뿐, 문제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예컨대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장르의 자료들을 선정하여 수록한다는 것은 이들 교재들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학습자의 동기 유발, 교수-학습 방법 제시, 평가 자료 제시 등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그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교재를 대함에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재	내용 구성			설명
中國文化	1. 중국 지리 개관 4. 중국소수민족 7. 공자 10. 진시황릉 병마용 13. 중국 고대 역법 16. 실크로드 19. 차 및 차를 마시기 22. 중국 고대 시가(2) 25. 중국 서예 예술 28. 고궁 31. 무술	2. 중국 고대 신화 5. 중국인의 성씨와 이름 8. 중국 용 11. 중국 고대 사대 발명 14. 민간 전통 명절(1) 17. 중국 도자기 20. 중국 술 23. 중국 고대 소설 26. 경극 29. 중국 고전 원림(園林)	3. 한자 6. 중국의 농업 9. 만리장성 12. 중국의 석굴 예술 15. 민간 전통 명절(2) 18. 중국 요리 21. 중국 고대 시가(1) 24. 중국 그림 27. 중국 고대 건축물 30. 중국 의학	이 교재는 각 문화주제에 관한 설명글이 수록되어 있고, 각 과(課)는 본문 주석 → 자료 → 힌트 → 어휘 →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文化中國 (중국문화 읽기교육 1)	중국인의 문화 전통	1. 중국인의 문화 전통 2. 한턱내기와 체면 문제 3. 미국인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가?		두 교재의 각 단원에는 해당 문화주제에 관한 설명글과 해당 문화주제에 관한 문학 작품이나 기타 장르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각 단원은 본문1 → 어휘 → 관용어나 표현 → 문형과 어휘 사용법 → 연습 → 본문2, 3, 4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예의와 풍속	4. 중국의 예의와 풍속 5. 중국인의 선물하는 풍속 6. 지나치게 똑똑한 양수(楊修) 7. 한식절(寒食節)의 전설 8. 누가 가장 용감한 사람일까: 문관? 무관? 9. 공성계(空城計) 이야기		
	중국의 황제 제도	10. 중국의 황제 제도 11. 강직한 황후와 어리석은 황제 12. 溥儀황제 즉위하기 13. 황제에서 戰犯, 公民까지		
	전통적인 중국 가정	14. 전통적인 중국 가정 15. 집 16. 전통, 女兒經 17. 송나라 · 沈園 이야기 18. 중국의 “小皇帝” 19. 손자를 빼앗는 사건		
解讀中國 (중국문화 읽기교육 2)	중국의 과거시험 제도	20. 중국의 과거시험 제도 21. 范進中舉 22. 아버지에게 드린 편지 23. 아버지의 편지 24. 丁龍 선생의 꿈 25. 伍 선생 26.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선생님과 가장 증오하는 선생님		
	중국인의 명절	1. 중국인의 명절 2. 설을 쇠기 · 축복 3. 묘족인의 설을 쇠는 풍속 4. 뉴욕 할로윈데이 행진 5. 성탄절 전야의 凡卡 6. 송냥이를 파는 소녀		
	중국인의 종교와 신앙	7. 중국인의 종교와 신앙 8. 중국인의 성씨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9. 중국인의 금기 10. 사원[寺廟]에 관해서 11. 미치게 만드는 샘물 이야기 12. 인연 13. 史湘雲 陰陽 말하기(홍루몽)		
	중국의 농민	14. 중국의 농민 15. 중국 역사상의 농민 봉기 16. 陳涉世家(史記) 17. 호남성의 농민운동 18. 류(劉)씨 할머니와 巧姐兒(홍루몽) 19. 桂珍 언니		
중국의 현대화	20. 중국의 현대화 21. 마르코 폴로 22. 파리의 “중국 공주” 이야기 23. 중국인과 세계 대사(大事) 24. 홍콩이 반환되던 그 날 25. 미국인이 전 세계에서 한 가지 언어만 필요하다고 여			

4. “한국(조선)문화” 수업 지도 방안

陳申(2001: 102-125)은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언어교육처럼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지니는 문화교육을 진행할 때, 즉 언어요소에 융합된 불분명한 문화요소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명한 문화지식을 교수할 때, 문화강좌(文化講座), 문화견학[文化參觀], 문화토론(文化討論) 및 문화감상[文化欣賞] 네 가지 방법을 통합시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방법은 독자적인 문화지식을 가르치는 과목으로서의 ‘한국(조선)문화’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

우선 문화강좌(文化講座)는 클래스(class)를 단위로 하는, 교사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문화지식을 전수하는 교사중심 교수-학습 방법이다. 교사가 충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제한된 수업 시간에 중요한 문화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학습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방법의 장점이다. 반면에 학습자는 능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사가 강의한 내용을 피동적으로만 적고 들으며, 교사와의 상호 교류를 거의 이루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교사가 사전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거나 강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로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문화 지식 전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문화견학[文化參觀]은 문화강좌(文化講座)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이나 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문화주제에 관한 견학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지식을 몸소 감지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학습자의 능동성을 발휘하게 하고, 학습자가 직접적인 견학활동을 통해 문화지식을 보다 인상 깊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 방법의 장점이다. 반면에 불충분한 사전 준비로 인해 맹목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학습활동으로 전환돼 버릴 수 있는 것, 문화강좌(文化講座)처럼 빈번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등은 이 방법의 단점이다. 그리고 이 방법도 문화강좌(文化講座)처럼 교사와 학습자 간의 교류, 학습자 간의 교류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

문화토론(文化討論)은 클래스(class)를 단위로 하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 교류를 중요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조직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가 학습자들이 지정된 문화주제에 관하여 질차대로 마주보고 토론을 전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해당 문화주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학습자의 능동성을 발휘하게 하고 자신의 견해가 다른 학습자들에 의해 인정된 데서 얻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이 그 장점이고, 다른 학습자들 앞에서 보다 복잡한 견해나 개념, 섬세한 구별 등을 남김없이 표현해 내는 언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반면에 교사, 학습자의 불충분한 사전 준비로 인해 토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 토론하다 주제를 이탈하는 상황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그 단점으로 지적된다.

문화감상[文化欣賞]도 클래스(class)를 단위로 하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 교류를 중요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교사가 사회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학습자가 개인이나 그룹을 대표하여 어떤 문화주제나 문화사건에 관한 종합 보고를 해 줌으로써 교사와 모든 학습자들이 그 보고에서 전달된 문화지식이나 소식을 공유하게 하거나 문화의 한

		길 때	
--	--	-----	--

측면을 공동으로 감상하도록 한다. 쉽게 말하면 학습자의 소감과 독후감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학습자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발표 주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동성을 발휘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또 문화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분석과 감상을 분명한 언어표현으로 다른 학습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능력, 문화에 대한 인식능력을 고루 신장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자주 관찰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양성하게 하고 일상생활과 언어학습에 존재하고 있는 섬세한 현상과 사실을 포착하여 배운 문화지식으로 감상 능력도 함께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자료를 조직하고 분석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강연을 잘 할 수 있는 자신감 등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교사가 이런 학습자들에게 사전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이들 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문화강좌라는 방법은 수필, 소설 등 문학 작품을 교수-학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못하지만, 문화지식을 직접 설명해 주는 글을 교수-학습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문화토론, 문화감상, 문화견학 등의 방법은 이 두 가지 장르의 글을 학습하는 데에 두루 효과적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조선)문화’ 과목의 교재에는 다양한 장르의 학습 자료가 수록될 것이다. 이에 구체적 학습 자료의 유형에 따라 이들 방법을 적당히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한국문화’ 수업 방안의 한 예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록 한다.

주제: 판소리(설명글)

학습자: 고급 단계의 학습자

교수-학습 목표: 한국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의 판소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판소리가 한국 문화사에서 지니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안다.

교수-학습 내용: 판소리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 판소리의 특징, 판소리 문학, 판소리의 문학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

교수-학습용 보조 자료: 판소리와 관련된 사진, 그림, 영화, 영상 자료 등.

수업 절차:

(1) 문화강좌: 교사가 두, 세 번의 문화강좌를 거쳐 판소리의 형성 배경과 발달 과정, 판소리의 특징, 판소리 문학, 판소리의 문학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준다.

(2) 문화토론: 두 번째나 세 번째 문화강좌가 끝난 후에 문화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토론주제는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는데, 예컨대 “판소리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판소리와 경극(京劇)과의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3) 문화견학: 한국의 국립국악원에 가서 판소리 공연을 직접 보고 감상하는 것 좋으나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불가능하다. 대신에 영화 『서편제』를 보여줄 수 있다. 서편제를 본 후에 그 소감을 말해 보도록 한다.

(4) 문화감상: 학습자에게 판소리 음악을 찾아 듣거나 판소리계 소설을 찾아 읽어 보도록 한다. 그리고 판소리 음악을 들은 소감과 판소리계 소설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교수-학습 평가: 수업의 초기단계에서 선택 문제를 주는 형식이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여 학습자가 판소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아본다. 그 결과에 따라 교수-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양을 적당히 조절한다. 문화토론이나 문화견학, 문화감상 활동을 진행할 때 학습자의 이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와 시정을 해 준다. 수업이 끝난 후 학습자들에게 서면 숙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평가한다.

5. 맺음말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한국문화 지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문화교육 실천이나 연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교육의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문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립된 문화 교과목으로서의 ‘한국(조선)문화’의 성격과 교수-학습 목표, 교재 개발 방향 및 수업 지도 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지식문화를 효율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을 구안해 봤다.

본 연구 목적은 효율적인 문화 지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있었으나, 필자의 역량과 지면관계상, 교과목 ‘한국문화’의 교수-학습 내용 구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의 한계를 인정한다. ‘한국문화’의 교수-학습 내용 구성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필자의 다음 연구에서 밝힐 것을 약속드린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화교육 연구가 극히 저조한 중국의 한국어교육계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다만 선구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화교육의 내용 범위나 체계,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재 개발, 독립된 문화 교과목(즉 지식문화 교육)등 제반 영역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한국어 교육계 교수진들이 짊어질 몫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보유(2005), 중국의 한국어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론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
김광수(2000), 한국어 교수에서의 문화요소 주입에 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역음, 태학사.
노명완(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론,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문영자(2002), 한국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접목에 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Ⅲ,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태학사.
- 민현식(2004),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학,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신영성(2007), 한국의 현대문화와 예술, 2007 중국 한국어교육자 연수 프로그램 논문집, 경의대학교 국제교육원.
- 이득춘(2000), 한국어 교수에서의 문화교육에 대한 학습수감,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태학사.
- 이용혜(2000), 사유와 번역,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태학사.
- 이정자(2000), 언어와 문화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태학사.
- 조항록(2004), 한국어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조현용(2003), 한국어문화 교육방안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22호, 이중언어학회.
- 최명식(2000),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범위와 전수방법,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엮음, 태학사.
- 陳 申(2001), 語言文化教學策略研究, 中國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周思源 編(1998), 對外漢語教學與文化, 中國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南燕(남연, Nam Yeon)

中國 北京大學校 朝鮮語學科

100871 北京市 海澱區 頤和園路 5號

86-10-62766567/ seoulnan@hanmail.net